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20년 2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20(목) 14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2. 20(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담당과장	이귀현 과장(044-203-4020) 윤현주 과장(044-200-2211) 김명규 과장(044-215-4530)	담 당 자	김태형 서기관(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044-203-4025) 이주노 사무관(044-203-4022) 조영길 사무관(044-203-4023) 조성래 사무관(044-200-2227) 이홍섭 사무관(044-215-4532)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

- ◇ 범부처·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속한 조업재개,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 ◇ 2030년 수출 4대 강국을 위한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정부는 2월 20일(목)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함

*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경제 5단체장, 업종별 단체장, 유관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등 70여명

- 정부는 **현 수출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주재)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하여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장함

○ 특히,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였음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

○ 그러나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는 마음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함

《 최근 수출여건 분석 》

□ 그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부진 하였으나, 올해 초부터는 수출 여건의 회복세를 나타냄

* 1월 수출 : ①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②반도체·선박 업황 개선 및 ③수출 단가 증가(+4.4%) 등 회복 조짐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더욱이,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03년 사스 때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비중(%) : (‘03) 4.3 vs (‘19) 16.9(4배)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비중(억불) : (‘03) 18.1 vs (‘19) 25.1(1.4배)

- 특히,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특정 품목·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구조하에서

* 수출 집중도(무협, '18년) : 韓(1,063), 日(925), 美(745), 中(659), 佛(548), 獨(426)

- 코로나19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함

- 아울러 **2030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 대책 주요내용 》

1 그간 애로사항을 토대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 지원

- ◇ 코로나19 관련 **민·관 기업애로 해소 대응체계**를 통해, **조업 재개·부품 수급** 등 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소** → 조기 정상화 지원
- ◇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마케팅**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에 대해 **유형별로 신속대응**하고 있음
 -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소관 애로에 대해 **밀착 지원**하고 **해소**하고 있으며,
 - 작년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물류·통관·인력·환경·금융** 등 **수방위**로 지원하고 있음

* 수급대응 지원센터 : 7개 부처·15개 기관 (총 24명) →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지원

- 특히, **중국 중앙·지방 정부와 분야별 핫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음

< 협의채널 운영 현황 >

구 분	분야별 핫라인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 지원기관과 「민·관 합동 在中 기업 애로지원 T/F」를 구성하여 통관, 물류, 노무, 세무, 외환 등 기업 애로해소를 지원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기업 수, 애로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10개 중국 지방정부와 긴급 핫라인(국장급)을 구축하여, 조업 재개 조기승인, 방역물자 지원 등 기업애로 신속 지원 ➔ 특히, 중국 현지 ‘와이어링 하니스’ 공장 가동을 통해 국내 자동차 공장이 생산을 재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애로가 큰 물류·통관 분야도 중국 해관간 핫라인을 가동해 중국 현지 및 국내 신속 통관처리 등 다각적 지원

- 그럼에도 **리스크가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함

- (**긴급 유동성 보강**)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1조원**을 추가 지원하여 작년보다 **28.1조원** 늘린 **260.3조원**을 공급하기로 함

-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하여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임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임

* 보험금 80%까지 가지급, 보상기간 단축(2개월→1개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 보상, 수출 중소기업 온렌딩 공급 등 1.1조원 추가 확대 등

- **(물류·통관 신속 지원)**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하여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수입물품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항공운임은 해상 대비 15배 이상

- 또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함
- 한편,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티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임
- **(조기 조업재개 지원)** 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1:1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할 것임
- 또한,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임
- **(수출 기회 확보)**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 확대 구축하여,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 「수출활력추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하여,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하여 수출 중단방지·다변화·역량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신북방으로 대체, 하반기 일정조정, 화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對中 수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예정이었던 기업에 대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10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함

- **(분쟁대응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한편,

* 소액사건(2억원 이하)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 피해 대응 매뉴얼 보급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임

2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 ◇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유티 활성화, 수입국 다변화** 등 다각적 대책 추진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즉시 대응)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하고
- (중장기 대응) ①유티 활성화, ②해외투자 유치, ③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④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품목 유형별 대응)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별로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유티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기존 사업장 신설의 경우에 더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티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을 하기로 했으며,

-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5조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임

< 협력형 유턴 제도 신설 >

현행		신설 (협력형)
공급망 연계 무관	⇒	수요기업-유턴기업 연계
산단 우선입주 혜택	⇒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신설

- 특히, 자동화 등 비용 경쟁력 확보·품질제고·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 지원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기로 함

□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생산력을 확충할 예정임

- 해외 소부장 우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추진하고,
-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함
-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금융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 재편을 유도하기로 함

- GVC 재편과 국내 유턴 촉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 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출시할 계획임

< 무역지원 프로그램 >

구분	주요 내용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국내 구매기업에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U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 지원

- 특정국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하고,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Milk Run)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 공급망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방안」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임
- 또한,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5조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하기로 함

3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주제)수출생태계 저변 확대, (방식)수출방식의 혁신, (품목)우리 강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발굴, (시장)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 기회 창출의 4대 혁신 가속화 ➡ 2030년 수출 4강 도약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계획임

-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 * 5년간 1.1조원 투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
-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 * (기간) 5일 → 1일, (서류) 3종 이상 → 0종
 - * 가입목표 : ('20년) 2만개사 → ('21년) 3만개사 → ('22년) 4.5만개사 (수출 중소기업의 50%)
- 또한 성장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를 마련할 예정임
-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할 계획임


-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과 제조 강점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기로 함
 - 징둥,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 활용을 통한 방송 판매도 추진할 예정임
 - 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함
- Big3+DNA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 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임

구 분		주요 내용
Big3	미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 EU 환경규제 강화 활용 전기차·수소차 수출에 박차, 수소 충전소를 보유한 對美협력으로 수소차 초기시장 진입 추진 ■ (부품) 완성차·부품기업 동반진출 확대, 부산·군산 등을 부품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수출 기지화 ■ (서비스) 서비스 모델 해외 실증 등을 통해 제품 수출을 넘어 서비스·솔루션·유지보수(O&M) 등 연계산업 수출 확대
	시스템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팹리스 글로벌 수요 연계, 파운드리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생산허브 구축, 패키지 수출 등 수출 100억불 달성
DNA	5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5G 인프라 투자수요를 활용해, 5G 기술·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 강화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유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20년 575억원)으로 혁신서비스 창출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통신사 AI 기기·솔루션을 유럽·동남아 대상으로 수출 →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AI 투자펀드(3,000억) 등 기반 확대

-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임

- ‘新북방 협력의 해’를 활용한 글로벌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무역 2천억불 시대를 전인하기로 함
 -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新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하반기에는 「新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 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함

- 붙임 : 1.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2.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3.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주요내용
 4.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이주노 사무관(☎ 044-203-4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 부 서		담당 과장	담당자	분 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이귀현 (044-203-4020)	김태형 서기관 (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 (044-203-4025) 이주노 사무관 (044-203-4022) 조영길 사무관 (044-203-4023)	총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윤현주 (044-200-2211)	조성래 사무관 (044-200-2212)	총괄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044-215-4530)	이홍섭 사무관 (044-215-4532) 권은영 사무관 (044-215-4535)	예산·세제 등
	대외경제총괄과	이형렬 (044-215-7610)	심수현 사무관 (044-215-7613)	수출금융 (수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서성일 (044-202-6220))	박현진 사무관 (044-202-6221)	ICT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김상진 (044-201-2171)	노승호 사무관 (044-201-2172)	농식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 (044-201-3993)	서정관 서기관 (044-201-3994)	물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희 (044-202-7994)	한은숙 서기관 (044-202-7543)	고용/노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김성희 (044-200-5480)	배준오 사무관 (044-200-5481)	수산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정재훈 (042-481-4391)	기정희 사무관 (042-481-6813)	중소기업 (기보, 중진공)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박경진 (02-2100-7576)	천성희 사무관 (02-2100-7704)	외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조은희 (044-201-6770)	서민아 서기관 (044-201-6771)	환경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선욱 (02-2100-2860)	안기남 사무관 (02-2100-2862)	금융 (산은, 신보)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042-481-7810)	조한진 사무관 (042-481-7811)	통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창대 (042-481-5182)	박종필 사무관 (042-481-3573)	특허

붙임 2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 2. 20(목), 14:00~16:00 (120분)

□ 장

소 :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 * 서울시 강남구

□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부처, 경제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등 77명

○ 민간(35)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업종별 협회장

○ 지자체(17)

서울·부산 등 시·도 부단체장

○ 연구기관(4)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등

○ 부처(16)

산업·기재·과기·행안·중기부·금융위·중기옴부즈만 등

○ 총리실(4)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 세부계획

* 진행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무역협회장 감사말씀까지 공개
- | 시 간 | 세부 내용 | 비 고 |
|------------------|--|-------|
| 14:00~14:03('03)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자 |
| 14:03~14:08('05) | 인사말씀 | 국무총리 |
| 14:08~14:10('02) | 감사말씀 | 무역협회장 |
| 14:10~14:15('05) | 【 발표 : 무역협회 】
: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영향 및 정책제언 | 무역협회 |
| 14:15~14:25('10) | 【 대책 보고 : 산업부 】
: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 산업부 |
| 14:25~15:55('90) | 자유토론 | |
| 15:55~16:00('05) | 마무리 말씀 | 국무총리 |
- 11 -
- 12 -

붙임 3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주요내용

- ☐ (목적)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수출
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 촉진
-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가속화
- ☐ (주요내용) *코로나19 애로해소, *GVC 재편 대응, *무역구조 고도화

① 코로나19 초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	
무역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대비 3.1조원 추가, 총 260조원 공급 ▶ 대금未결제 피해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 중소기업 운영당 1.1조원 추가 지원 * 보험금 80%까지 지급, 보상기간 단축(2→1개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보상
물류·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긴급사유 발생시 항공 운송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 부여
조업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日 화이트리스트 품목(159개)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 ▶ 중국 진출 기업 조업재개에 필요한 방역 물품 해외 조달 지원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권 전용 사이버상담존 등 온라인·화상 상담회 확대 ▶ 中 취소 전시회는 유사 동일 업종 전시회에 대체 전시회 피해 기업은 제3국 전시회 우선 참가 지원
분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재비용 감면(50~95%) 등 1:1 법률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피해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설명회 개최,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 확인(우협, 코트라 등)
②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기존 효율성 위주 → 안정성)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한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 하이테크형(對日 100여개), 범용품목형(對中 90개), 기초 원료형(미·자전지 등)로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유턴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기존 신설 경우에 더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 (임지)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로 유턴기업 입주 허용 ▶ (금융) 4.5조원 규모의 중소·중견 유턴기업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스마트공장)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지원 및 지원수준 확대 ▶ (제도신설)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GVC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리스크 부담완화를 위한 3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출시 * 글로벌 공급망 전환 보증,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 방식 도입 추진
③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주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수출비중 20%까지 확대) * 해외에 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전사인프라 확충(5년간 1.1조원 투자),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출시
품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3+DNA를 新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산업 확대 ▶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지원 ▶ 제조 강점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 협력의 해' 활용 글로벌 벨류체인 강화,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무역 2천억불 시대 견인 ▶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 추진 등